

《서 평》

Chung-Si Ahn, *Social Development and Political
Violence: A Cross-National Causal Analy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 1 판, 1981년 ; 제 2 판, 1984년) 191p. + xix

柳 勝 男

(國民大 政外科)

I.

安清市 教授의 『社會發展과 政治暴力』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저작이다. 理論的·實際적으로 適實성이 높은 선명한 問題意識과 確固한 理論的基礎 뿐만 아니라 원숙한 方法論的 무장, 그리고 段階적으로 모형을 설정해 가는 자세에서 安教授의 학문적인 집념과 야심이 역력한 力作이라 볼 수 있겠다.

政治社會學的 視覺에서 볼 때 安教授가 연구한 政治暴力이란 主題는 아리스토텔을 以來 政治學의 重要한 연구대상으로 設定되어 왔다. 그러나 政治暴力의 樣相·原因·效果를 分析하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分析單位の 差異로 구분해 보면 特定の 價値追求를 도운다든지 저해하는 환경 및 社會구조의 특성으로부터 정치갈등의 深度·強度·頻度·持續性을 說明하려는 巨視理論과, 갈등·폭력에 연관된 人間行動의 決定要因中 生活의 소망스런 條件이나 사물 및 이러한 價値획득에 關한 規範을 중요시하는 微視理論, 그리고 特定の 價値追求를 爲한 人間行動을 組織하는 여건과 人間行動이 組織화된 政治構造를 중요시한 集團理論으로 區分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分析的 區分은 價値規範 및 社會構造와 政治構造間의 相互 密接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너무 單純화된 것이지만 政治갈등에 關한 諸理論의 特性을 간결하게 고찰하는 데 有用하다.

認識論의 측면에서 볼 때 理論의 科學化가 시도되면서 實驗的 方法, 比較 方法 그리고 時系列分析 등 多樣한 方法이 政治暴力의 諸要因을 규명하는 데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政治·社會현상의 研究에 있어서 實驗條件의 統制에 直面하는 難點이라든지, 長期間의 時差를 두고 관찰해야 하는 問題때문에 이러한 方法들의 효용가치는 감소되어 왔다. 反面에 比較方法은 個人·集團 또는 國家間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分別함으로써 모든 對象에서 觀察할 수 있는 體系의인 變化의 認識을 通하여, 그리고 特定 對象에 固有한 特殊性을 觀察할 때 이러한 特殊性을 說明하려는 시도를 通하여 一般理論化 作業에 증추적인 역할을 한다. 政治暴力의 比較研究는 國家보다는 個人 또는 集團을 分析單位로 設定하여 흥미있는 理論의 근거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多國交叉研究는 정치폭력 및 갈등이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요인 및 政治·社會構造를 고려하므로써 보편적인 理論追求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政治暴力 현상을 理解하는 데 증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I.

安教授의 『社會發展과 政治暴力』은 政治暴力에 관한 多樣한 巨視理論으로부터 추출된 假說을 經驗的 現實에 검증한 것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A Cross-National Causal Analysis"란 副題가 보여 주듯이 國家를 分析單位로 設定하고 "a macro-system level of aggregate data"를 活用하였으며 標本은 世界 8個國으로 限定하였다. 複雜한 因果關係를 검증하는 데 매우 적절한 多變數 回歸分析과 路線分析 技法을 假說검증에 사용하였다.

本著書는 三編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一編은 政治暴力의 定義와 이의 操作化로 구성되어 있다. 政治暴力이 多次元의 概念임이 分明하지만 理論的 水準에서 볼 때 體系의으로 分類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狀況에서 安教授는 政治갈등 行爲의 諸指標를 수집하여 경험적으로 諸次元을 결정하는 절차를 擇하고 있다. 특히 政治暴力은 Mass Violence와 Governmental Violence의 두 次元으로 大別되어 대중폭력은 Protest와 Internal War로 細分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한 폭력은 Repression과 Coercion으로 區分되는 要因分析 結果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第二編은 政治暴力에 관한 가설검증, 第三編은 政治暴力의 새로운 理論의 向方으로 構成되어 있다. 政治暴力에 관한 巨視理論中 한 國家內 不均衡狀態의 根源으로 國內 社會環境 要因을 重要視한 社會構造理論과 희소가치의

權威적인 配分過程을 결정하는 政治的 條件을 重視하는 權力-갈등理論, 그리고 國際環境要因의 影響을 핵심적인 설명변수로 간주하는 從屬理論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第二編은 正統적인 近代化理論으로부터 추출한 가설검증을, 그리고 第三編은 정치갈등이론과 종속이론으로부터 추출한 가설검증으로 엮어져 있다. Hibbs(1973)의 정치폭력 연구가 잘 대변해 주고 있듯이 政治暴力에 關한 實證的 研究의 대부분은 社會變動理論에 기초한 諸假說 검증에만 치중한 점을 감안할 때 정치갈등이론과 종속이론의 검증도 포괄한 安教授의 研究를 높게 評價할 수 있겠다. 實際로 1970年 後半부터 政治暴力理論의 변화추세는 經濟從屬, 外國과의 갈등, 외세간여 등 外部의 환경적 要因을 重要 說明變數로 취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實情이다.

Ⅲ.

安教授는 近代化理論의 시각으로부터 經濟發展, 社會流動化, 政治制度化, 그리고 政府의 副應性을 重要變數로 설정하고 이들간의 因果關係를 검증하고 있다. 大規模 社會變動過程으로 간주할 수 있는 近代化는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社會·文化 및 經濟制度를 혼돈 내지 해체시키지만 새로운 형태의 制度로 流動化된 大衆을 포용하는 데 時間을 要한다. 더 나아가 近代化가 隨伴한 政治參與 擴大나 복잡한 利害가 얽힌 集團間的 相互作用 增大는 社會的·政治的 긴장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어떤 集團을 政治體制로부터 소외시킬 가능성도 많다. 때문에 近代化過程은 종종 아노미, 불만, 기대의식 增大, 價値觀의 갈등 및 소외현상을 야기하고 이러한 條件下에 정치폭력이 만연케 된다는 것이 近代化理論의 主命題이다. 그러나 社會의 변화추세에 能動的으로 적응하고 個人·集團의 多樣한 利害間에 새로운 연관을 창조할 수 있는 政治制度의 能力은 政治安定을 維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많은 變數間的 因果關係를 段階的으로 검증한 安教授의 研究結果는 정치폭력의 형태에 따라 理論의 一般性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政治暴力中 Repression모형의 설명력은 거의 없는 반면 Political Restrictness 모형은 近代化理論의 妥當性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Political Restrictness는 社會·經濟發展뿐만 아니라 政治制度화와 같은 政治的 條件에

依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대중폭력 중 Protest는 政治參與에만 관련되고 있는 반면에 Internal War는 정부의 부응성 및 정치참여와 같은 政治的 要因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부분적일 망정 近代化理論의 경험적 타당성은 Political Restrictness와 Internal War와 같은 폭력행태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說明力이 높지 않음을 安教授의 研究는 밝혀주고 있다.

安教授는 構造機能主義 視覺에 立脚한 近代化모형의 代替모형으로 權力-갈등모형을 밝히고 있다. 政治갈등이론은 個人이나 集團의 不滿과 이의 物理的 表現間의 關係가 많은 政治的 條件을 通하여 媒介된다는 前提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시각은 日常 政治過程에 組織基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強調하고 政治權力構造가 社會集團의 利益을 對應·規制하는 方法에 關心을 集中한다. 그러나 政治權力構造의 특성도 社會·經濟·文化的 要因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감안할 때 機能主義와 政治갈등理論은 상호 補完的 特성을 갖고 있다.

아리스토텔 以來 최소가치는 不平等을 배태하고 不平等은 階層化된 社會 秩序의 根據를 이루고 있다는 命題는 널리 收用되어 왔다. 실제로 모든 사회는 階層化되어 있고 補償을 위한 鬭爭은 모든 社會에서 展開되어 왔다. 政治過程을 최소가치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 볼 때 사회불평등에 대한 투쟁이 해결되는 程度와 方法은 계급구조나 集團分化的 政治的 結果에 重要한 영향을 준다. 政治갈등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安教授는 社會不平等과 經濟從屬을 핵심적인 說明變數로 선정하고 社會低所得層의 利益을 集約·表出하는 平等主義에 立脚한 정치운동의 強度, 政府의 副應性, 政治制度化, 政治參與 등 諸政治的 條件의 媒介效果도 고려하고 있다.

安教授의 研究는 多樣한 指標로써 測定한 社會平等의 程度가 政治暴力에 미친 영향은 既存의 研究에서 밝혀졌듯이 說明力이 높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不平等은 政治暴力보다는 大衆暴力을 說明하는 데 더 有用하며 政治갈등모형이 近代化모형보다 더 정확하다는 結果는 음미해 볼 만한 필요성이 많겠다. 더 나아가 近代化, 政治갈등 두 모형은 各各 獨立的인 說明力을 가지며 相互補完的인 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모형의 절충적인 시도가 向後 政治暴力理論이 指向할 方向임을 安教授는 명확히 제시한다.

外國資本의 침투와 交易均衡과 같은 經濟條件이 relative deprivation에 자극을 주는 震源이 된다는 Gurr의 폭력이론에서나 經濟從屬이 사회계층구조 및 權力配分樣相을 決定하여 불안과 갈등을 促進시킨다는 Galtung이나 Skocpol의 構造論에서 보듯이 外部環境要因이 國內 政治條件을 결정지운다는 命題는 近來에 많은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命題를 檢證한 실증적 연구는 희소한 것이다. 安教授는 經濟從屬을 Vertical trade concentration과 Trade partner concentration 그리고 Trade commodity concentration로 측정하여 이의 直接效果와 間接效果를 검증하고 있다. 政治暴力에 對한 경제중속의 直接的인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으며 중속적인 경제조건은 정치체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政治暴力은 政治體制 수행능력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결론은 경제중속이론의 修正, 補完에 시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IV.

綜合컨대 安教授의 『社會發展과 政治暴力』은 그 質에 있어서나 포괄하고 있는 理論의 범위를 고려할 때 높게 評價받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向後 政治暴力理論을 再定立하고 體系의인 연구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까 한다.

먼저 安教授는 현재 측정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은 變數를 연구에 포함시켜 모델의 specification error를 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社會의 文化的 異質性이나 社會移動機會 등 政治暴力理論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를 除外했기 때문에 specification error의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다. 理論의 측면에서 볼 때 重要한 文獻의 고찰은 安教授의 학구적인 성숙을 잘 대변해 주고 있으나 政治暴力에 關한 實證的 研究結果에 관한 고찰을 간과한 점이 있겠다. 연구의 범위, 標本의 크기, 그리고 變數測定方法의 차이 때문에 연구결과와 체계적인 比較에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他研究 文獻의 고찰은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向後 研究가 지향해야 할 方向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다. 安教授는 研究結果를 단결하게 綜合하고 近代化 理論과 정치갈등이론의 절충적인 이론 형성 필요성을 強調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方向設定이 아쉬운 감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安教授의 研究

자세와 결과에 비해 볼 때 극히 사소한 것이며 體系的인 경험적 연구가 희소한 現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安教授의 연구가 정치폭력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의 경험적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